

[성명] 카카오의 끝모를 탐욕, 대리기사 프로서비스 중지하라

-카카오, 기껏 '대리시장의 독버섯'이었어?



▲ 전국대리기사협회 등, 수도권 대리기사단체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카카오의 프로서비스 중지, 대리기사 수탈중지를 촉구했습니다.

대리 기사를 상대로 벌이는 카카오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대리운전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유보해왔던 프로서비스를 5월1일부터 감행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에 눈치만 봐왔던 그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리기사들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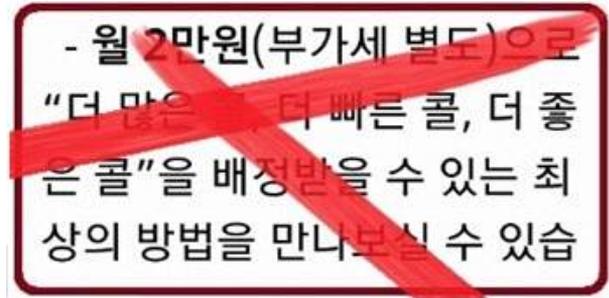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초, 소위 '프로서비스'라는 갈취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소속기사들이 건당 20%의 수수료는 물론 매달 별도의 2만2천원과 이중보험료를 내면 매일 2개의 콜과 제휴업체들의 콜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카카오는 이를 더 많은 콜, 더 높은 수입을 올릴 프리미엄서비스라고 분칠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리기사들을 두번세번 짓밟는 신종 수탈행위입니다. 급행료, 웃돈을 내지않는 기사들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대리기사들에게 기사장사로 부당이득을 빨아들이겠다는 양심불량 선언입니다.

카카오, 기껏 '대리시장의 독버섯'이었어?

수도권 대리기사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횡포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기에 합심하여 중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잠시 주춤하며 프로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프로모션이니 하며 가입료를 되돌려 주는 식으로 기회만 엿보아왔습니다. 그간 사회적 문제제기와 카풀사업의 파행적 혼돈 상태에서 눈치보며 기회를 엿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 대리업자들과 다를 바 없이 20퍼센트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가져가기에, '수수료 외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사회적 비판을 모면해왔건만, 이제는 탐욕의 본성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2분기 실적리포트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하루 평균 콜수는 3만콜 이하, 카카오기사수는 12만여명이상입니다. 카카오 기사 한명당 3만/12만, 즉 하루 한콜도 배정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제 본격적 기사장사를 개업하겠다는 선언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프로서비스 횡포는 이미 일부 지방에서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번지고 있는 소위 '땡큐콜'의 전면적 확대판입니다.

이미 콜이 말라버린 현장에서 대리기사들은 절망에 절어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곤 합니다. 이렇듯 한정된 콜에 대리기사를 과도하게 모집하여 일거리부족에 시달리게 해놓고, 별도의 급행료와 이중보험을 강요하는 야비한 불량업자들의 횡포를 이제 카카오가 앞장서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급행료, 웃돈을 낸 기사에게 별도 콜을 준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기사에겐 일거리 끊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지나면 별 차별성이 없어지기에 똑같이 일거리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카카오는 이것을 빌미로 더욱 악질 수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괘재 부르는 불량대리업자들

대리기사들은 그간 부당한 시장의 현실 속에서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써 카카오의 대리운전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고율의 수수료와 대리보험료 착복, 벌과금에 관리비니 출근비니, 일방적인 업무정지와 배차제한 같은 낯설고 야만적인 횡포가 횡행하는 시장에서 이를 개선할 절절한 바램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바램과 응원은 오히려 카카오에겐 만만한 먹이감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카카오는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기사 무한 모집 등, 기존 업자 못지않은 횡포를 자행하면서도 이미 지분칠에만 급급해 왔던 것입니다. 근래에는 콜가격을 변칙적으로 은폐하는 신종 수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대리기사 수 12만명, 이중 절반만 프로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해도 연간 약 1백5십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양상한 대리기사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제휴콜에 들어가는 이중보험료는 콜당 5퍼센트의 수수료 인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리판은 이제 콜 없어도 대리기사 등쳐먹는 새로운 기법들이 판치게 됩니다. 기존의 불량 대리업체들도 쉬쉬하며 은밀하게 진행하던 악질적 수법을 카카오가 앞서서 길을 열고 먹이를 던져주니 불량업자들에게겐 핑먹고 알먹는 행복한 고민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카카오의 각종 지원금을 받아먹고, 카카오가 잘 닦아놓은 새로운 기사장사의 길에 올라타는 일만 남은 겁니다.

플랫폼사업의 악질적 선도기업 카카오

급속히 확대·팽창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 상황을 악용하고 발달된 ICT기술을 동원한 '맞춤형 수탈'이 용이합니다. 이제 카카오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우월적 기술력을 동원하여, 차별하고 기만하며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들의 주머니털기를 본격화했습니다.

대리운전과 택시, 주차와 네비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거의 유일한 수입은 대리기사 주머니에서 나온다 합니다. 대리기사들의 취약한 여건과 사회적 무관심을 악용해 욕심 채우기가 용이했던 겁니다.

이런 카카오가 이제 기존 대리업자들과 결탁하여 신산업의 악질적 선도주자로 우뚝 서려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횡포 속에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노동의 위기가 무엇인지 카카오는 온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량 대리업자들의 자랑찬 전진부대, 4차산업혁명의 총아 카카오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대리기사들의 약점을 악용한 그들의 탐욕은 세상의 양심과 여론의 준엄한 꾸짖음이 더해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급행료 협박 기사차별, 프로서비스 중단하라.
2. 이중보험 웬말이나 반성하고 철회하라.
3. 대리기사 다 죽이는 무한모집 중지하라.
4. 공정거래위 무엇하나, 급행료 수탈 처벌하라.
5. 카카오는 반성하고 상생협력 앞장서라.
6. 플랫폼 악질기업, 카카이를 처벌하라.

2019. 5. 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www.weddrivers.net

Tel. 1666-5634

(사)전국
대리기사협회